2017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논술시험 문제지

인문계열 1회차

2016년 11월 20일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감독 확인	

◆ 유의사항 ◆

1. 시험시간은 120분입니다.
2. 논술답안은 문항별로 한 가지 필기구(검정색 볼펜 또는 연필)를 선택하여 일관되게 작성합니다. (수정액, 수정테이프, 색깔펜은 사용을 금지합니다)
3. 답안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이나 표시를 하는 경우 실격 처리됩니다.
4. 수정할 사항은 원고지 사용법에 따라 수정합니다.
5. 문제는 총 2문제이고, 답안지는 총 2장입니다.
6. 각 문제별로 지정된 답안지의 정해진 위치에 답안을 작성합니다.
7. 연습용지는 문제지 제일 뒷장의 연습지나 문제지 여백을 활용합니다.
8. 문제지(연습지 포함)를 찢거나 분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9. 감독위원이 시험시작을 알리기 전까지는 문제를 볼 수 없습니다.
10. 시험 시작 후 문제지의 문항수를 확인합니다.
11. 시험 종료 후 문제지와 답안지 모두 감독위원에게 제출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
숙명여자대학교
SOOKMYUNG WOMEN'S UNIVERSITY

공 통 문 항

<가> 정보자본주의 사회는 그 시스템에 최적화된 새로운 시간 체계를 가지게 될 것인가? 1998년 10월 23일 스위스의 세계적인 시계 제조업체인 스와치(Swatch)는 인터넷 시대에 가장 적합한 새로운 시간측정법을 만들어냈다고 발표했다. 스와치에 따르면 인터넷의 발달로 더욱 편해지고 잦아진 지구적 차원의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는 새로운 '보편시(universal time)'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터넷에 의해 형성된 가상공간에서 국제회의가 열린다고 가정해보자.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각자 다른 지역 시간을 가진 참가자들이 동시에 회의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교한 시간표가 준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개회식이 런던 시간(그리니치 표준시, Greenwich Mean Time)으로 아침 10시에 열린다면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7시, 뉴욕 시간으로는 오전 5시가 될 것이다. 따라서 회의 참석자들은 개회시간을 맞추기 위해 표준시간을 고려하며 움직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스와치가 만든 '인터넷 시간'은 이런 불편을 없애줄 것이라고 한다. 거기에는 시간대(international time zone)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 시간은 시, 분, 초 대신 '비트'(bit가 아니라 beat라 쓴다)를 기본 단위로 사용하는 새로운 시간 체계이다. 하루(24시간/1,440분/86,400초)를 1,000비트로 나눠 @를 붙여 표기하는데, 86.4초는 @001비트에 해당한다. 낮 12시는 스와치의 새로운 시간 체계에서 @500비트이다. 이 인터넷 시간을 이용하면 인터넷상이나 또는 공항에서 @500비트에 만나기로 약속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인터넷 시간이 단지 시간을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일 뿐 아니라, 스와치 본사가 위치한 스위스의 빌(Biel)이라는 도시에 설정된 자오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시간설정 방법이기 때문이다. '빌 표준시(BMT: Biel Mean Time)'는 인터넷 시간의 보편적인 준거점이 될 것이다. 인터넷 시간에서 하루의 시작(@000비트)은 빌의 자정에 시작한다. 이 인터넷 시간은 밤이든 낮이든 세계 어디에서나 똑같다.

이와 같은 인터넷 시간에 대해 MIT 대학 미디어랩의 네그로폰테(N. Negroponte)는 이렇게 말한다. "인터넷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 시간이다. 현재는 현재이고 이 현재는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왜냐하면 숫자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터넷 시간 논의는 전자상거래에서 구입과 배송 시간이 전 세계적으로 일치될 필요가 있다는 식의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일몰과 일출의 자연적 리듬이 더 이상 문제시되지 않는 시간 단위의 출현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나> 17세기 후반 '분' 단위를 측정하는 시계가 발명되었다. 분 단위의 시간 계산은 당시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이었다. 비약적으로 높아진 정밀도는 곧 일반적인 시간 감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사람들이 '시간 엄수'를 입에 올리기 시작한 것은 시계 자체의 발전에 따른 것이었다. 기술이 정교한 시간을 알려줄 수 있게 됨에 따라 시간 엄수도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었다. 이는 개인의 선택사항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간 질서에 편입되기를 원하든 아니든 시간 엄수는 하나의 규범이 되었고, 개인은 그것에 익숙해져야만 했다.

게으름은 도덕적 타락으로 간주되었다.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회에서 시간의 모눈종이가 순식간에 촘촘해진 것은 당연했다. 특히 청교도인들은 엄격한 노동 규율을 요구했다. 한 청교도 성직자는 "매 분을 더없이 소중한 재화로서 노동에 사용해야 하고, 건강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오래 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시기에 늦잠을 막기 위해 자명종이 출현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강조되어 취침시간과 기상시간을 구별하는 시간표가 등장하였으며, 그것은 또한 시간을 헛되이 써서는 안 된다는 강박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새로운 시계가 널리 퍼진 결과 17세기 후반부터는 대기 시간을 줄이고 작은 단위의 시간들을 꼼꼼하게 활용하려는 욕구가 강해졌다. 노동 시간은 점점 더 엄격하게 통제되었고 휴식은 제한되었다. 대도시의 삶은 전체적으로 빨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다> 현대적 기술을 통해 인간은 땅에서 분리된다. 비행기와 우주선은 인간을 지구의 중력에서 떼어놓는다. 인간이 땅 위에서 빨리 움직일수록 땅은 그만큼 줄어든다. 지상의 거리를 극복할 때마다 인간과 땅 사이의 거리는 커져간다. 게다가 인터넷은 아예 땅 자체를 증발시킨다. 전자공간은 무공간적이다. 현대적

기술은 인간의 삶을 땅에서 소외시킨다.

이처럼 인간이 느끼는 시간은 가속화되어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간의 가속화는 사물들을 확고한 공전궤도에 붙들어두던 지구의 중력을 서서히 사라지게 만들었다. 사물들은 그 의미 연관에서 풀려나와 방향을 잃고 부유하거나 어지럽게 날아다니게 되었다. 외부의 관점에서는 이 광경이 마치 사물들이 가속화의 힘으로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사물들은 의미의 중력이 없기 때문에 이탈하고 서로에게서 멀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가속화는 결과적으로 탈시간화를 낳게 되며, 전반적인 탈시간화는 의미를 형성하던 시간적 매듭, 종결, 문턱, 이행 등의 소멸을 가져온다. 시간이 예전보다 빨리 흘러간다는 느낌도 뚜렷한 시간의 분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한 느낌은 사건이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한 채, 즉 '경험'이 되지 못한 채 빠르게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버리는 까닭에 더욱더 강화된다. 삶이 완전히 리듬을 상실할 때 시간적 감각의 교란이 일어난다. 시간이 과거보다 훨씬 더 빨리 간다는 인상 또한 오늘날 사람들이 머무를 줄 모르게 되었다는 것, 지속의 경험이 대단히 희귀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사정에서 비롯된다. 이에 대해 근대적 문화 프로그램은 세계의 가능성들을 더 빠르게 맛봄으로써—체험 속도의 증대를 통해—각자의 삶을 더 충만하게 만들고 더 풍부한 체험으로 채워갈 수 있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와는 정반대이다. 개인의 경험 축적에 의해 생성되는 개인의 서사는 그 개인마다 고유한 것으로서 결코 속도의 증대에 의해 더 풍요로워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오늘날 필요한 것은 개인에 따라 다른 시간, 즉 일의 시간이 아닌 새로운 시간을 생성하는 시간 혁명이다. 시간에 향기를 되돌려주는 혁명이다.

1.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고, <다> 저자의 입장에서 그 공통점에 대해 비판하시오. (단, <참고문>을 활용할 것) (1,000±100자)

<참고문>

상대성 이론이 소개되기 전, 물리학에는 뉴턴의 '절대 시간'이라는 상식적인 생각이 있었다. 절대 시간이란 어느 곳의 누구에게나 시간이 동일하다는 사고방식에 근거한다. 물체의 운동 상태 등을 비롯해 무엇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고 흐르는 시간으로서, 우리의 상식과 일치하는 사고방식이다. 그러나 아인쉬타인의 이론은 절대 시간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사건'이었다.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운동하고 있으면 그곳에서는 시간이 느려진다는 것이다. 또 그 결과로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길이는 줄어들어 보인다. 서로에 대해 상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관측자들은 주어진 한 순간에 서로 다른 '지금'을 느끼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은 '실체'에 대해 서로 다른 개념을 갖게 된다.

계 열 문 항

<가>
그는 앉아있다.
최소한의 움직임만을 허용하는 자세로
나의 얼굴, 벌어진 어깨, 탄탄한 근육을 조용히 핥는
그의 탐욕스런 눈빛

나는 혐오한다, 그의 짧은 바지와
침이 흘러내리는 입과
그것을 눈치 채지 못하는
허옇게 센 그의 정신과

내가 아직 한 번도 가본 적 없다는 이유 하나로
나는 그의 세계에 침을 뱉고
그가 이미 추방되어버린 곳이라는 이유 하나로
나는 나의 세계를 보호하며
단 한 걸음도
그의 틈입을 용서할 수 없다.

갑자기 나는 그를 쳐다본다, 같은 순간 그는 간신히
등나무 아래로 시선을 떨어뜨린다.
손으로는 쉴 새 없이 단장을 만지작거리며
여전히 입을 벌린 채
무엇인가 할 말이 있다는 듯이, 그의 육체 속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무엇이 거추장스럽다는 듯이

-기형도,「늙은 사람」

<나>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비참해지지 않거나 행복할 것이라면 무엇이 두렵겠는가? 제 아무리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라고 해도, 오늘 저녁까지도 멀쩡할 거라고 확신할 정도로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을까? 오히려 노인들보다 젊을수록 비명횡사할 가능성이 높은 법이다. 젊은 나이에는 쉽게 병에 노출되고, 더욱 심하게 앓으며, 완치되기도 힘든 법이다. 때문에 그들 중에서도 지극히 소수만이 노년기까지 살아남는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더 현명하고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이성적이고 분별력이 있고 현명한 조언을 하는 것은 온전히 노인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만약 노인들이 없다면 국가는 제대로 존립할 수 없을 것이다.

죽음의 문제는 비단 노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다들 알다시피 죽음의 문제는 젊은이들에게도 똑같이 존재한다. 죽음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살아갈 희망이 남아 있지만 노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헛된 희망에 불과하다. 노인들은 달리 바라는 것이 없다고들 말한다. 오히려 노인들이 젊은이들보다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바라는 것들을 이미 얻었으니 말이다.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 노인은 이미 오랜 세월을 버텨온 사람들이다. 수명이 더 길다고 슬퍼할 이유는 없다. 따스한 봄날이 가고 여름과 가을이 왔다고 해서 농부가 슬퍼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봄은 젊음의 계절이고 앞으로 결실의 시기가 다가올 것을 약속하지만, 이어지는 여름과 가을은 그동안 맺은 결실을 수확하기에 좋은 계절이기 때문이다. 노년기의 결실이란 지금까지 행했던 미덕을 회상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기회를 뜻한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모든 것들은 미덕으로 여겨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조화로운 일이 어디 있을까? 때로는 젊은이들도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지만, 그때마다 자연이 거세게 반항을 한다. 때문에 젊은이들이 죽으면 거센 물살이 뜨거운 불길을 단숨에 꺼버리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살 만큼 산 노인이 죽음을 맞으면 오랫동안 타오르던 불꽃이 서서히 꺼지는 것처럼 자연스럽다. 과일이 제대로 익지 않았을 때는 수확하는 것조차 힘들다. 하지만 농익은 과일은 저절로 바닥에 떨어지듯이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은 폭력이요, 노인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은 원숙함이다. 나로서는 그런 원숙함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다> 노인이란 '사회의 규범에서 밀려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년을 맞이해서 무직이 되면 더 이상 '사회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非)노동인구로서 생산 활동 구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전철 무임승차와 같은 각종 할인, 다양한 시설의 노인 무료입장 등의 우대가 있음을 생각해 보면 적극적 소비자도 아닙니다. 왠지 모르게 '미성년자는 무죄'와 비슷한 자유로운 상태가 됩니다. 그런 고령자가 지금 대량으로 세상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노인이 지니고 있던 힘은 사회의 폭주를 막아주는 안전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세대가 좀 더 나이를 먹는다고 해도 사회의 안전판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노인은 권위에 의지한다.'라든지 '노인은 보수적이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그 말을 적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과거보다 '분별없는' 노인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누군가 나에게 요즘 시대 '노인의 힘'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교란하는 힘'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아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노인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회는 자칫하면 무정부 상태로 흘러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조금씩 듭니다. 물론 나쁜 의미에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의 교란하는 힘은 생산성이나 효율성, 젊음과 유용성을 중심으로 하는 지금까지의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젊은이가 문화를 만든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젊음을 선험적으로 귀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뿌리 깊게 남아 있어서입니다. 그러나 젊음에 우월한 가치를 두는 생각은 전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처럼 젊은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면 모를까, 요즘의 상황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고령자가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5명 가운데 1명이 예순다섯 살 이상이 되는 사회의 미래는 사라집니다.

인간에게 가장 궁극적인 공포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의 힘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노인이 소수였던 과거의 피라미드 형태로 구성된 사회와는 달리 오늘날과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 죽음은 아주 흔한 것으로 바뀌어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만, 나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반대로 각오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아이들처럼 되면 됩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은 상태라고 해도 아이처럼 모르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적어도 죽음에 대해 다양하게 고민하고 마음의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두렵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 인생에 대해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을 피한다면 끝없이 두려움에 떨어야겠지요. 나는 그 경험 덕분에 과거보다 대담해졌고 좀 과장해서 말하면 '활이든 대포든 얼마든지 덤벼라.'라는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나이 드는 것에 대해 '쇠퇴'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울 것은 없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이를테면 '자기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쓰인다면 무턱대고 이런저런 일에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노년'의 의미와 연관하여 <가>의 시적 화자와 <나>의 저자가 보이는 태도를 비교하고, <다>의 논지를 활용하여 각각 비판하시오. (1,000±100자)

연 습 지